

李白「登覽」三十六首 譯解(3)*

趙成千, 呂亭淵**

<目 次>

1. 서론
2. 본론
 - 1) 광무성 옛 전쟁터에 올라 회고하며(登廣武古戰場懷古)
 - 2) 노자 사당에 참배하며(謁老君廟)
 - 3) 가을날 양주 서령사탑에 올라(秋日登揚州西靈塔)
 - 4) 금릉 야성 서북쪽 사안의 돈대에 올라(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
3. 결론

1. 서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본'과 '물질'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신'과 '인문'의 가치가 상실됨으로써 각종 병리 현상들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인문학을 부흥시켜서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답고 문명화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상은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인 인문학을 꽃피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문학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자들이 특히 각종 고전 인문학 텍스트에 대해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인문정신이 현대에 재생산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양이 되고 삶의 철학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고전 인문학텍스트에

* 이 논문은 '韓國李白詩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 i)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ii) 우송대 호텔관광경영학부 초빙교수(교신저자 treefish12@lycos.co.kr)

대한 역주와 해석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문학의 이러한 지향과 역할을 위하여, 국내 몇몇 학자와 연구자들은 『李白全集』을 역주하여 李白의 인생과 예술 향기를 대중에게 전파시키고자 하였다. 『李白全集』을 역주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이백의 인생과 예술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완역이 없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李白全集』의 완역을 기획하여 시가작품부터 역주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은 작품·연구→발표→토론→수정→재토론→재수정→역주완성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 「李白「登覽三十六首 譯解(3)」」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본고는 이백의 「登覽」 36수 가운데 “광무성 옛 전쟁터에 올라 회고하며(登廣武古戰場懷古)”, “노자 사당에 참배하며(謁老君廟)”, “가을날 양주 서령사탑에 올라(秋日登揚州西靈塔)”, “금릉 야성 서북쪽 사안의 돈대에 올라(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의 4수를 다루었다. 「登覽」은 높은 산이나 누대 등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묘사하며 감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는 ‘登’이나 ‘望’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작품의 역주에 있어서 원문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 체제는 ‘翻譯·校記·詳釋·解說’로 구성하였다. ‘翻譯’은 원문을 최대한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며 시적인 맛이 나도록 하였다. ‘校記’는 字句의 교감인데, 詹鏞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저본으로 字句 異同을 고찰하였다. ‘詳釋’은 시의 ‘翻譯’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解說’은 작품에 대한 배경, 년도, 분석, 감상, 평가 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역주 작업을 통해 이백의 삶과 예술 인생이 오롯이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그 결과가 학술계에 큰 공헌이 되기를 희망한다.

2. 본론

1) 광무성 옛 전쟁터에 올라 회고하며(登廣武古戰場懷古¹⁾)

秦鹿奔野草, ²⁾	진나라가 황권을 잃자
逐之若飛蓬. ³⁾	축록(逐鹿)의 무리들이 쭉대처럼 몰려 다녔지.
項王氣蓋世, ⁴⁾	항우는 기개가 세상을 덮고
紫電明雙瞳. ⁵⁾	쌍동자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지.
呼吸八千人, ⁶⁾	팔천 명의 장정을 불러 모아

- 1) 廣武: 광무성. 지금의 河南省 滎陽縣의 동북에 소재. 『水經注·濟水』에 따르면, 형양현에 廣武城이 있는데 城은 산 위에 있고 漢나라가 축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高祖와 項羽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화할 때, 고조가 항우의 열 가지 죄를 따져 묻자 항우가 활로 한고조의 가슴 부위를 명중시킨 고사가 전하는 곳이다. 『元和郡縣志·河南道鄭州滎陽縣』에서는 “동쪽 광무, 서쪽 광무의 두 성은 각각 산꼭대기에 있고, 거리가 200여 걸음이 며, 형양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한고조와 항우가 모두 광무에 대치하여 주둔했다. 지금 동쪽 성에 높은 기단이 있는데, 바로 항우가 劉太公(유방의 부친)을 높은 기단에 앉히고 한나라 군대 쪽에 보였다(東廣武, 西廣武二城, 各在一山頭, 相去二百餘步, 在縣西二十里. 漢高祖與項羽俱臨廣武而軍, 今東城有高壇, 卽是項羽坐太公於高壇上, 以示漢軍處)”라고 하였다. ○ 古戰場: 옛 전장터. 초한전 때의 초군과 한군이 대치하던 광무성을 가리킨다.
- 2) 秦鹿: 진나라의 제위(帝位). 『史記·淮陰侯傳』의 “진나라가 사슴을 잃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쫓고 있사오니, 제주가 높고 발 빠른 자만이 그것을 먼저 차지할 것입니다(秦失其鹿, 天下共逐之, 於是高材疾足者先得焉)”는 말에서 유래했다. 여기에서 축록(逐鹿)이란 말이 유래하여 황권의 쟁탈을 의미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진시황의 죽음으로 천하가 난세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 3) 飛蓬: 날리는 쭉대머리. 전쟁이 잦음을 가리킨다.
- 4) 氣蓋世: 기개가 세상을 덮다. 항우가 기원전 202년 垓下(垓下)의 전투에서 패하여 그 아쉬움을 노래할 때 스스로 “힘으로는 산을 뽑을 수 있고 기개는 세상을 덮건만(力拔山兮氣蓋世)”이라 하였다. 이 내용은 『史記·項羽本紀』에 전한다.
- 5) 紫電: 자줏빛 번개. 여기서는 눈빛을 형용하였다. ○ 雙瞳: 쌍동자. 동자가 두 개인 눈알. 『史記·項羽本紀』에는 “나는 주생(周生)에게서 ‘순의 눈은 아마도 눈동자가 둘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또 항우도 눈동자가 둘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항우가 어찌 순입금의 후에 이겠는가?(吾聞之周生曰, 舜目蓋重瞳子, 又聞項羽亦重瞳子, 羽豈其苗裔耶?)”라는 말이 있다.
- 6) 呼吸: 부르다. 호환(呼喚)과 같다. 이 구는 항우의 거병을 묘사하였다. 『史記·項羽本紀』에 “드디어 오중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수하를 보내 관할 현을 거두고 정예군 팔천 명을 얻었다(遂舉吳中兵, 使人收下縣, 得精兵八千人)”, “항랑이 팔천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項梁乃以八千人渡江而西)”, “내가 강동의 자제 팔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

橫行起江東, ⁷⁾	강동에서 일어나 천하를 중횡했네.
赤精斬白帝, ⁸⁾	적제의 아들 유방은 백제의 아들인 백사를 칼로 베고
叱吒入關中. ⁹⁾	풍운을 호령하며 관중으로 들어갔네.
兩龍不並躍, ¹⁰⁾	두 용이 함께 뛰어오를 수 없으니
五緯與天同. ¹¹⁾	다섯 별이 하늘에 함께 나타나 제왕의 출현을 보였네.
楚滅無英圖,	초왕 항우는 뛰어난 책략이 없어 멸망하였고
漢興有成功.	한왕 유방은 공을 가져온 사람들로 흥하였네.
按劍清八極, ¹²⁾	검을 들고 팔방의 끝까지 평정하고
歸酣歌大風. ¹³⁾	고향에 돌아가 술에 취하여 <대풍가>를 불렀네.

다(籍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등의 기록이 있다.

- 7) 江東: 장강의 동쪽 부분. 지금의 화둥 지역을 가리킨다.
- 8) 赤精: 적제(赤帝)의 정기(精氣). 한 고조 유방(劉邦)을 가리킨다. 《漢書》의 안사고(顏師古) 주석에 “유방은 적룡(赤龍, 붉은 용)으로 느끼고 태어나 스스로 적제의 정기(赤帝之精)라 불렀다(高祖感赤龍而生, 自謂赤帝之精)”는 기록이 있다. ○ 斬白帝: 백제를 자르다. 유방이 백사를 죽인 일을 가리킨다. 유방이 술을 마시고 밤중에 소택지를 지나가다가 큰 뱀을 만나자 검을 뽑아 뱀을 두 동강 냈다. 뒤에 도착한 사람들이 뱀이 죽은 곳에 한 노파가 울고 있어 우는 연유를 물었더니, “내 아들이 백제의 아들인데 뱀으로 변하여 길을 막고 있다가 지금 적제의 아들에게 베어졌기에 통곡하는 것이오(吾子白帝子也, 化爲蛇當道, 今爲赤帝子斬之, 故哭之.)”라고 하였다. 이 고사는 『史記·高祖本紀』에 전한다.
- 9) 叱吒: 노하여 큰소리로 꾸짖다. ○ 關中: 지금의 陝西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通典·州郡三』 권173에서는 동쪽의 함곡관(函谷關)에서 서쪽의 농관(隴關)까지 약 천 리에 걸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史記集解』에서는 서광(徐廣)은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武關), 서쪽의 산관(散關), 북쪽의 소관(蕭關)에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하였다. 유방은 기원전 206년 10월에 관중에 들어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 10) 兩龍: 두 마리의 용. 항우와 유방을 가리킨다.
- 11) 五緯: 다섯 개의 별.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이들 다섯별이 모이는 것을 제왕이 하늘의 명을 받는 징조로 보았다. 『漢書·天文志』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나라 원년 10월, 다섯별이 동쪽의 정성(井星)에 모였다. 이는 역법으로 추산하면 세성(목성)을 따른 것으로, 고조가 천명을 받았다는 징조이다. 그리하여 객이 장이에게 말하였다. ‘동쪽 정성은 진땅에 해당하오. 한왕이 진으로 들어갈 때 다섯별이 따르고 세성에 모였소. 마땅히 의로써 천하를 취해야 할 것이오(漢元年十月, 五星聚於東井, 以曆推之, 從歲星也, 此高祖受命之符也. 故客謂張耳曰, ‘東井, 秦地; 漢王入秦, 五星從, 歲星聚, 當以義取天下.’)”
- 12) 八極: 팔방의 끝. 『淮南子·地形訓』에 “팔괘의 밖에 팔극이 있다(八紘之外, 乃有八極.)”는 말이 있다.
- 13) 歌大風: 大風歌를 노래하다. 기원전 195년 겨울, 유방이 영포(英布, 즉 黥布)를 평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고향인 패현을 지날 때, 옛 친구, 어르신, 자제들을 불러 함께 큰

伊昔臨廣武,	그 옛날 광무성에 대치하며
連兵決雌雄.	병력을 모아 자웅을 겨룰 때
分我一杯羹, ¹⁴⁾	유방은 “나에게도 국 한 그릇 나눠주게
太皇乃汝翁. ¹⁵⁾	태황은 곧 자네 아버지이기도 하네”라 말했다.
戰爭有古蹟,	전쟁터엔 아직도 옛 자취가 남아있으니
壁壘頽層穹. ¹⁶⁾	높은 벽과 보루는 높은 하늘 아래 무너져 있네.
猛虎吟洞壑,	사나운 호랑이는 골짜기에서 울부짖고
飢鷹鳴秋空.	굶주린 매는 가을 하늘에서 우네.
翔雲列曉陣,	날아가는 구름은 새벽 군영처럼 늘어섰고
殺氣赫長虹.	살기는 긴 무지개가 되어 붉게 걸쳐있네.
撥亂屬豪聖, ¹⁷⁾	난세를 평정하는 것은 영웅호걸의 일이니
俗儒安可通. ¹⁸⁾	속된 선비가 어찌 알 수 있으리오.
沉湎呼豎子, ¹⁹⁾	술에 빠진 자가 유방을 “이 자식”이라 불렀으니
狂言非至公. ²⁰⁾	미친 말에 불과하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네.

잔치를 베풀면서, 마을의 아이 120명을 시켜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불렀다. “큰바람 일자 구름이 흩날리네. 해내(海內)에 위엄을 떨친 후 고향에 돌아왔네. 어찌하면 용맹한 장병들을 얻어 사망을 지킬까(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이 내용은『史記·高祖本紀』에 전한다.

- 14) 分我 2구: 유방과 항우가 광무성에 대치할 때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 『史記·項羽本紀』에 의하면 여러 달이 지나도 승부가 나지 않자 항우가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태공(유방의 부친)을 올려놓고 “지금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태공을 삶아 죽이겠다(今不急下, 吾烹太公)”고 하였다. 유방은 “나와 항우는 북면하여 회왕의 명을 받고 ‘형제가 되기로 약속한다’라고 하였으니, 나의 아버지가 곧 그대의 아버지이거늘, 그대의 아버지를 반드시 삼고야 말겠다면 내게도 국 한 그릇을 나누어주기 바라네(吾與項羽俱北面受命懷王曰‘約爲兄弟’, 吾翁即若翁, 必欲烹而翁, 則幸分我一杯羹)”라고 하였다. 항우가 태공을 죽이려하자 항백이 태공을 죽인들 이익이 없다고 하니 그만 두었다.
- 15) 太皇: 劉邦의 부친.
- 16) 層穹: 높은 하늘.
- 17) 撥亂: 난세를 다스리다. ○ 豪聖: 영웅 같은 군주. 유방을 가리킨다.
- 18) 俗儒: 식견이 비루하고 진부한 유생. 여기서는 아래에 나오는 阮籍을 가리킨다.
- 19) 沉湎: 술에 빠지다. 탐닉하다. ○ 豎子: 이 자식.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완적이 광무성에 올랐을 때 유방을 떠올리며 ‘이 자식’이라고 부른 일을 가리킨다. 『晉書·阮籍傳』에 “완적이 일찍이 광무성에 올라 탄식하길 ‘당시에 영웅이 없어 이 자식이 이름을 얻었구나’라고 하였다(嘗登廣武而歎曰, ‘時無英雄, 使豎子成名.’)”는 내용이 있다.

撫掌黃河曲, ²¹⁾	황하 굽이에서 박수를 치며
嘓嘓阮嗣宗. ²²⁾	한바탕 완적을 비웃노라.

<校記>

제목이 '登廣武楚漢古城'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7구의 '帝'가 '蛇'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2구의 '成'이 '來'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으나, '成'이 옳다.
 제19구의 '戰爭'이 '爭戰'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1구의 '吟'이 '嘯'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으며, '嘯'가 여운이 길다.
 제22구의 '鷹'이 '鶯'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으나, 잘못이다. 그리고 '鳴秋空'의 '鳴'이 '獵'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9구의 '撫'가 '拊'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30구의 '嘓嘓'가 '蚩蚩'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진시황이 죽자 강대한 진나라는 하루아침에 어지러워지고 군웅들이 다투어 일어나 황권을 빼앗으려 하였다.
 초나라의 項羽는 기세가 온 세상을 덮을 만하고, 동자가 두 개 있는 눈알은 번개처럼 번쩍거렸다.
 팔천 병사를 거느리고 강동에서 일어나 천하를 종행하니, 가히 패왕의 위엄이 넘쳤다.
 赤帝의 아들인 劉邦은 길에서 白帝의 아들인 흰 뱀을 베어버리고,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나아가 풍운을 일으키며 관중으로 들어갔으니, 황제의 위엄이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한나라와 초나라가 모두 진나라를 계승하여 황제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

20) 狂言: 망언(妄言).
 21) 撫掌: 손뼉치다. ○ 黃河曲: 황하의 물길이 굽어진 곳으로, 광무 땅을 말한다.
 22) 嘓嘓: 웃웃. 비웃는 소리. ○ 嗣宗: 완적. 사종은 완적의 자(字).

다. 그러나 하늘에 해가 들일 수 없듯이 두 마리 용이 나란히 뛰어오를 수 없었다. 天命은 德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니 다섯별이 동쪽의 井星에 모여들어 천하가 한 나라에 돌아갈 징조를 보였다.

초나라는 원대한 계획이 없었기에 천하를 잃게 되었고, 한나라는 義로써 일어나 쌓아온 공덕이 있었기에 흥기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漢王은 세 자 길이의 검을 들고 천하의 혼란을 평정하였다. 영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주홍이 거나한 채 〈大風歌〉를 불렀다.

그 옛날, 한나라와 초나라가 광무성에 주둔하여 보루를 쌓고 대치할 때 초나라는 자웅을 겨루어 속히 승부를 내고자 하였다.

항우가 높은 단 위에 태공을 앉혀놓고 삶아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유방은 “우리가 형제의 맹약을 맺었으니 나의 아버지는 곧 그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면서 “나에게도 그 국 한 그릇 나누어 달라”며 개인의 정의보다는 천하를 생각하였다.

광무성의 옛일은 아직도 자취가 남아, 하늘 향해 높이 쌓은 보루는 무너져 내려 황량한 폐허가 되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다만 사나운 호랑이가 골짜기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굽주린 매가 가을 하늘을 선회하며 울고 있는 모습뿐이다.

눈에 보이는 구름은 아침의 군영처럼 늘어섰고, 옛 전장의 살기는 아직도 무지개로 걸쳐 있는 듯하다.

천하의 난을 다스려 바로 잡는 것은 영웅호걸의 일이니, 어찌 비루하고 좁은 식견의 유생이 알 수 있겠는가?

완적은 술꾼으로 유명한데 그가 광무성에 올랐을 때 유방을 ‘이 자식’이라고 낮추어보았으니, 이는 망언이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나는 황하가 굽이도는 곳에 있는 광무성에서 박수를 치며 완적을 비웃는다.

<解説>

형양의 광무성에 올라 옛 전쟁터를 둘러보고 초한전의 역사와 인물을 회고하였다. 특히 항우와 대비하여 유방을 높이 평가하면서, 말미에서는 유방을 비난했던

삼국시대 완적을 비판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시의 제작 연대에 대하여 731년 설(安旗), 734년 설(郁賢皓), 745년 설(詹鍈)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형양 지역이 장안에서 산둥으로 이동할 때 거치는 곳이므로 이백이 여러 차례 지나갔기 때문이며, 시에서 이백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위의 제작 연대는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시의 구성을 보면, 제1구부터 제8구까지 첫 단락은 진나라 말기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립을 제시하였고, 제9구부터 제14구까지의 둘째 단락은 천명에 의한 한나라의 성립을 묘사하였다. 제15구부터는 구체적인 고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8구까지의 셋째 단락은 광무성의 초한전쟁의 일화를 통해 한고조의 기민한 대응과 용지를 드러내어 한고조가 장차 천하의 패권을 차지할 인물임을 밝혔다. 제19구부터 제24구까지의 넷째 단락은 전쟁터의 옛 자취만 남은 현재의 황량한 정경을 묘사하였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한 고조를 비하한 완적을 조롱함으로써, 한고조를 찬미하는 뜻을 강조하였다. 시는 전체적으로 漢高祖의 뛰어난 재략과 원대한 계략을 높이 받들어 자신의 웅장하고 호방한 뜻을 펼쳤다.

이 시와 관련하여 이백의 완적 비판은 상당히 강렬하여 역대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시의 진부 여부 논쟁으로 이어졌다. 완적은 위진 교체기의 명사로 이름이 높는데, 그와 유사한 기질의 이백이 완적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송대 蘇軾으로 “당시에 영웅이 없어 이 자식이 이름을 얻었구나”(時無英雄, 使豎子成名.)는 완적의 말에서 당시는 초한전 때가 아니라 위진 시기이며, ‘이 자식’도 유방이 아니라 위진 시기의 집권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은 홍邁(洪邁)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완적은 위진 교체기에 유방과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백은 〈완적전〉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된다. 원대 蕭士贊 역시 이러한 의견을 계승하면서 이백이 완적을 잘못 볼 리 없으며, 그밖에 시의 구성에 있어서의 착종과 부친을 모독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백의 작품이 아니라고 보고 시집의 권말에 붙였다. 嚴評本の 明人도 이 작품을 淺俗할 뿐 뛰어난 구절이 없어 위작이라고 단정지었다. 청대 왕기(王琦)는 이상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이백의 시임을 강조하였다. 완적의

백안시 입장에서 보면 한고조를 '이 자식'이라 부른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편 이백의 입장에서 보면 한고조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완적을 낮추고 기롱한 것 또한 시의 수사적 기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상의 전개도 제목과 부합하여 조리있고 정연하다고 밝혔으며, 광무전의 전고 역시 초나라와의 기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한무제의 굳건한 담력을 대변하여 이백의 시임을 입증하였다. 현대 학자들은 대체로 왕기의 설에 동의하고 있다.

2) 노자 사당에 참배하며. 양송(謁老君廟.²³⁾ 梁宋)

先君懷聖德, ²⁴⁾	선군 노자는 성덕을 지녔으니
靈廟肅神心.	신령한 사당 앞에 마음 숙연해지네.
草合人蹤斷, ²⁵⁾	풀이 뒤덮어 사람 자취 끊어지고
塵濃鳥跡深.	먼지는 짙어 새 발자국 깊이 찍혔네.
流沙丹竈滅, ²⁶⁾	서역에는 붉은 부뚜막 사라졌고
關路紫煙沉. ²⁷⁾	함곡관 길에는 보랏빛 기운 꺼졌네.

23) 老君廟: 唐나라 때 道教에서 老子를 太上老君이라고 하였다. 李白은 東漢 桓帝 延熹八年(165年)에 老子의 탄생지라고 믿는 지금의 河南省 鹿邑에 세운 老君廟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24) 先君: 唐나라 황제는 老子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여 皇帝로 추존하였으므로 이 시에서 先君이라하였다. 참고로, 唐 高宗 乾封 元年(666년)에는 太上玄元皇帝로 추존하였고, 玄宗 天寶 十三年(754年)에는 大聖祖高上大廣道金闕玄元天皇大帝라고 하였다.

25) 草合: 풀이 무성히 자라다. 또는 길 양쪽의 풀이 서로 맞붙다.

26) 流沙: 사막. 서역. ○ 丹竈: 丹藥을 제련하던 부뚜막.

27) 關路紫煙: 『太平禦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진인 윤희는 주나라 대부로서 함곡관의 관령이다. 어려서 배우기를 좋아하였는데 천문과 참위에 뛰어났다. 하루는 누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동쪽 끝에서 보랏빛 기운이 사방으로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윤희는‘만드시기이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곧 목욕계계하고 길을 쓸고 기다렸다. 노자가 함곡관을 지나가려 할 무렵, 윤희는 앞서 함곡관의 관리들에게 주의를 주기를‘만약 푸른 소가 끄는 얇은 판자 수레를 타고 가는 노인이 있으면 지나가게 하지 말고 멈추게 하여 나에게 알려라.’라고 하였다. 과연 노자가 이르니 관리가 말하기를 ‘잠시 멈추십시오.’라고 하였다. 윤희가 인끈을 허리에 차고 스승을 섬기는 도를 펼치니 노자가 거듭 사양하였다. 윤희는 말하기를‘원컨대, 저에게 글을 지어 대도의 뜻을 말씀해주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노자가『도덕경』상하 2권을 지었다(真人尹喜, 周大夫也. 爲關令. 少好學. 善天文秘緯. 登樓四望, 見東極有紫氣四邁, 喜曰應有異人過此.’ 乃齋戒掃道以俟之.

獨傷千載後, 홀로 슬퍼하니, 천년 뒤 지금엔
空餘松栢林. 부질없이 송백만 우거졌구나.

<校記>

제목 밑에 '梁宋'이라는 원주가 없는 판본도 있다.

<詳釋>

당나라 황제의 선조인 노자는 성스러운 덕을 품으셨으니, 이 신성한 사당에 들어오자 마음과 영혼이 모두 절로 숙연해진다.

그러나 풀들이 뒤덮듯 가득 자라 사람의 발자취가 사라진지 오래고, 흙먼지는 질게 쌓여 그 위에 새가 다닌 발자국만이 깊이 찍혀져 있다.

서역에서 노자가 일찍이 신선의 약을 만들었던 부뚜막은 벌써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노자가 함곡관을 지나가던 길에 떠있던 보랏빛 기운은 땅속에 가라앉아 떠오를 줄 모른다.

지금 내가 홀로 슬퍼함은 천여 년이 지난 지금 성덕을 지닌 노자를 아무도 기리지 않고 또 그의 자취 찾을 수도 없는데 부질없이 사당 트랙엔 소나무 잣나무 수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解説>

이 시는 제목에 근거한다면 이백이 梁宋지역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노자사당을 돌아보고 느낀 감회를 노래한 시이다. 이 사당은 아마도 老子의 탄생지인 河南省 鹿邑에 있는 漢나라 때 지어진 노자사당일 것이다. 唐나라의 황실은 자신들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여겨 노자를 받들고 전국적으로 도교를 진흥하였다. 그리하여 唐 高宗과 玄宗은 각각 한 차례와 두 차례 이곳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백이 찾아간 이 노자사당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쇠락해있었는데, 이러한 사실

及老子度關，喜先戒關吏曰若有翁乘青牛薄板車者，勿聽過，止以白之。’果至，吏曰願少止。’喜帶印綬，設師事之道，老子重辭之。喜曰願爲我著書，說大道之意，得奉而行焉。’於是著『道德經』上下二卷”。

에서 이 시는 安史의 亂을 겪은 뒤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백은 한동안 크게 융성하던 도교가 난리로 인하여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 세월의 무상함에 대하여 깊은 탄식을 내뱉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도교의 충실한 신자로서 그리고 신선을 갈망하는 추종자로서 그 시조가 되는 노자의 사당이 이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깊이 상심하였을 것이다.

이 시의 1, 2구는 노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읊었고, 3, 4구는 폐허로 변한 노자의 사당을 묘사하였으며, 5구에서 8구는 여기에 기인하여 노자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릴 수 있는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석함을 표현하였다. 특히 3, 4구의 사실적 寫景과 5, 6구의 상상적 敘事는 상징적인 한 두 장면만을 포착하여 이를 절묘히 표현해냄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런 데에서 이백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며, 독자들은 이백 시의 매력 나아가 시의 미학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이 시는 북송 초에 편집된 『文苑英華』에 唐 玄宗의 「過老子廟」라는 제목으로 원문과 함께 실려 있다. 다만 '先君'이 '仙居'로 '滅'이 '沒'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歐陽脩도 『集古錄』에서 이 시가 당 현종의 「謁玄元廟」이며 이 시를 새긴 비석이 洛陽 北邙山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에 대하여 清代의 王琦는 “내가 ‘풀이 영켜 ……’라는 한 聯을 자세히 음미해보니 이는 태평성대에 천자가 巡狩를 다니던 광경은 아닌 듯하다. 이 시는 단정코 李白의 작품이다(琦玩‘草舍’一聯, 似非太平時天子巡幸景象, 此詩定是太白作耳)”라고 하였다. 어느 설이 맞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지만, 이 시에 들어있는 내용과 감정이 이백의 다른 시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는 이백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가을날 양주 서령사탑에 올라. 회남(秋日登揚州西靈塔.¹⁾ 淮南)

寶塔凌蒼蒼, ²⁾	보탑이 푸른 하늘 위에 솟아있어
登攀覽四荒. ³⁾	올라가 사방의 끝까지 둘러보네.
頂高元氣合,	탑 꼭대기는 높아 우주의 기운과 합하고
標出海雲長. ⁴⁾	상륜부는 길게 펼쳐진 구름 위로 솟았구나.
萬象分空界, ⁵⁾	삼라만상은 광대한 공간에 나뉘어져 있고
三天接畫梁. ⁶⁾	삼천(三天) 하늘은 채색 대들보와 잇닿아 있네.
水搖金刹影, ⁷⁾	물결이 일자 찰주 그림자가 흔들리고
日動火珠光. ⁸⁾	해가 움직이면서 화주(火珠)가 광채를 발하네.
鳥拂瓊簷度,	새는 옥으로 만든 처마를 스쳐 날아가고
霞連續栱張. ⁹⁾	노을은 수놓은 듯 아름다운 두공과 이어져 펼쳐지네.
目隨征路斷,	눈길은 먼 길을 따라가다가 끊어지고
心逐去帆揚.	마음은 떠가는 배를 쫓아 날아가노라.
露浩梧楸白,	이슬이 가득 내려 오동과 가래나무가 하얗고
風催橘柚黃.	바람이 재촉하여 귤과 유자가 노랗게 익어간다.
玉毫如可見, ¹⁰⁾	부처님의 미간에서 내뿜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면
於此照迷方. ¹¹⁾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미망을 깨우치리라.

1) 西靈塔: 棲靈寺塔. 隋文帝 때인 601년에 세운 것으로, 회창 연간인 843년에 파괴되었다. 지금의 강소성 양주시에 소재했다. 1995년에 중건하였다.
 2) 蒼蒼: 심청색.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킨다.
 3) 四荒: 사방의 황벽하고 머나먼 곳.
 4) 標: 튀어나온 끝. 여기서는 절의 탑.
 5) 空界: 불교에서 말하는 六界 가운데 하나. 광대무변한 허공을 말한다.
 6) 三天: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7) 金刹: 刹竿 또는 刹柱라고도 한다. 탑의 상륜부에 있는 첨탑 부분.
 8) 火珠: 궁전이나 사찰의 용머리 중앙에 설치한 장식용의 구슬. 화염이 두 개나 네 개, 또는 여덟 개가 붙는다. 불탑 위에 장식한 구슬을 가리키기도 한다.
 9) 栱: 두공. 기둥 위에서 처마를 받드는 까치발의 목조 구조.
 10) 玉毫: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털. 여기에서 빛을 발하면 시방 세계를 비춘다고 한다.
 11) 迷方: 미혹의 처지. 미망의 세계. 먼저.

<校記>

- 제목아래 '淮南'이 빠진 판본도 있다.
- 제1구의 '荒'이 '方'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 제9구의 '簾'이 '簾'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 제13구의 '浩'가 '浴'이나 '濯'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 제14구의 '風'이 '霜'이나 '摧'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양주의 서령사탑은 푸르디푸른 하늘 위로 솟아있는데, 이 탑에 올라가 사방팔방의 끝까지 둘러본다.

탑의 꼭대기는 천지우주의 혼돈한 기운과 합쳐지고, 상륜부는 바닷가에 멀리 퍼진 구름의 위로 올라있다.

천지간의 만물과 일체의 현상은 이러한 허공에서 나누어져 나오고, 옥계·색계·무색계 등 삼천이 그림 그려진 화려한 들보와 접해 있다.

가까이 있는 물 위로 황금 장식의 찰주 그림자가 흔들리고, 태양이 움직이면서 탑 위의 火珠가 빛을 뿜는다.

새는 옥으로 깎은 듯한 아름다운 추녀를 스쳐 지나가고, 노을은 지수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두공과 나란히 이어져 펼쳐진다.

탑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이 이어지다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고, 마음은 장강을 지나가는 배를 따라 날아가는 듯하다.

가을이 되어 이슬이 많이 내렸기에 오동나무와 가래나무의 잎이 하얗게 보이고, 가을바람에 곱과 유자 열매가 점점 노랗게 변해간다.

이러한 가을날 서령사에서 만약에 사방을 비추는 부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내가 가야할 길을 환히 비출 수 있을 것이다.

<解説>

양주 서령사탑에 올라 바라본 풍광과 감개를 썼다. 첫머리 2구에서 양주 서령사탑에 올랐음을 말하고, 이후 제10구까지는 서령사탑의 형상을 묘사하였고, 이어지는 4구에서는 탑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을 그렸다. 말미 2구에서 부처와의 만남으로 불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탑의 높이를 관념적 높이까지 올려서 형상화시킨 점과 탑을 우주의 중심으로 그려 그 실체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언뜻 보면 소박한 고시의 풍모를 보이나, 사실 대구와 평측이 잘 갖춰진 五言排律이다. 전통적인 시작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정연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불탑을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백의 초기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침영과 安旗 등은 이백이 처음 양주를 방문했을 때인 726년(26세)에 지은 것으로 보며, 현대의 학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다.

4) 금릉 야성 서북쪽 사안의 돈대에 올라(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¹⁾)

(此墩卽晉太傅謝安與右軍王羲之同登，超然有高世之志。余將營園其上，故作是詩。金陵)

(이 돈대는 쯤나라 太傅였던 謝安이 右軍이었던 王羲之와 함께 올라서 초연히 세속을 초월하려는 뜻을 가졌던 곳이다. 내가 장차 이곳에 동산을 경영하고자 한 까닭에 이 시를 지었다. 금릉에서)

1) 冶城: 남경시 성 서쪽 朝天宮 부근에 있다. 『太平實字記』 권9에 따르면 上元縣 서쪽으로 五里 떨어진 곳에 있다. 삼국시대 쯤나라가 이곳에 冶宮을 설치하여 銅器와 鐵器를 주조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六朝事跡類編』에 따르면 쯤나라 元帝 太興(A.D 318~321) 초에 王導가 오랫동안 질환을 앓자 方士인 戴洋雲이 왕도에게 “나오리께서는 명운이 申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申 자리의 땅에는 대장간이 있어서 金과 火가 서로를 녹이고 있으니 이롭지 않습니다(君本命在申, 申地有冶, 金火相鑠, 不利)”라고 했다. 그러자 範遜에게 石城 동쪽에 있는 鬪隴山으로 대장간을 옮기라 하고 그 자리는 정원으로 꾸며 나무를 심었다. 徐廣의 『晉記』에 “성계에서 사도부에 가시다 야성에 있는 정원을 거니시며 살펴 보았다(成帝適司徒府遊觀冶城之園)”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晉室昔橫潰, ²⁾	옛날에 진나라가 독이 터지듯 무너져
永嘉遂南奔. ³⁾	영가의 난에 끝내 남으로 도망쳤다네.
沙塵何茫茫, ⁴⁾	전쟁은 어찌 그리도 끝이 없던지
龍虎鬥朝昏. ⁵⁾	군웅들이 아침저녁으로 다투었다네.
胡馬風漢草, ⁶⁾	한나라 초원에서 오랑캐 말은 쌍쌍이 짝을 짓고
天驕蹙中原. ⁷⁾	흉노의 군대는 중원 땅을 쳐 들어왔네.
哲匠感頹運, ⁸⁾	명철한 대신은 국운 쇠퇴를 감지하여

- 2) ○謝安(320~385): 東晉 중기의 재상. 제위를 찬탈하려는 桓溫(환온)의 야망을 저지했고, 前秦의 苻堅의 남하를 막아내면서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會稽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王羲之 등과 교류하였다. 진나라 초기의 명재상 王導와 함께 병칭된다. ○謝安墩: 금릉에는 4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야성에 있는 謝公墩이다. 『世說新語·言語』에 따르면 “왕희지와 사안이 함께 야성에 올랐는데 사안은 유유자적하게 현실을 초월한 고원한 상상을 하고, 세상을 초월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왕희지가 사안에게 말하기를 ‘夏와 禹는 왕사에 전념하다가 손발에 굳은 살이 박혔고 文王은 저녁 늦게 밥을 먹을 정도로 하루 종일 한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교외에 구축한 방어진지는 의당 사자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분반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허한 담론을 일삼느라 업무를 제쳐두고 헛된 문장을 짓느라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니, 아마도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안은 ‘진나라가 상앙을 등용했지만 두 세대에만 나라가 망하고 말았으니, 청언이 환난을 야기한다 하겠는가?’(王右軍與太傅共登冶城, 謝悠然遠想, 有高世之志. 王謂謝曰: ‘夏禹勤王, 手足胼胝; 文王旰食, 日不暇給. 今郊壘, 宜人人自效, 而虛談廢務, 浮文妨要, 恐非當今所宜.’ 謝答曰: ‘秦任商鞅, 二世而亡, 登清言致忠耶’)”라고 답했다. 『六朝事跡類編』에 따르면 半山에 있는 報寧寺 뒤에 그 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王琦 또한 이 설을 따랐으나 잘못된 것이다.
- 3) 永嘉: 『晉書·懷帝紀』에 “영가 5년에 ……劉曜와 王彌의 군대가 낙양에 들어왔다. 회제는 華林園의 문을 열고 河陰의 藕池(우지)를 나와 長安으로 탈출하고자 했지만 苻丕에게 붙잡히고 만다. 苻丕와 왕미는 낙양성을 불사르고 后妃를 능욕하였다. ……벼슬아치 중에서 학살당한 자만도 3만이 넘었다(永嘉五年, ……劉曜, 王彌入京師, 帝開華林園門, 出河陰藕池, 欲幸長安, 爲曜等遂焚燒宮廟, 逼辱后妃, ……百官士庶, 死者三萬餘人)”는 기록이 있다.
- 4) 沙塵: 전쟁.
- 5) 龍虎: 群雄. 호호십육국 시대에 중원을 두고 다툰 것을 비유한다.
- 6) 風: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유혹하다. 孔穎達은 『尚書·費誓』의 “馬牛其風”의 疏에서 賈逵의 설을 인용하여 “風은 ‘放’이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유혹하는 것을 ‘풍’(風, 放也. 牝牡相誘謂之風)”이라고 하였다.
- 7) 天驕: 흉노. 이 시에서는 ‘胡’ 전체를 가리키는 말. 『漢書·匈奴傳』에 “胡는 하늘이 총애하는 아들(胡者, 天之驕子也)”이라 하였다. ○蹙: 다가오다. 압박하다.
- 8) 哲匠: 지혜로우면서도 재능이 풍부한 대신. 이 시에서는 사안을 가리킨다. ○頹運: 쇠퇴하는 국운.

雲鵬忽飛翻, ⁹⁾	구름 위의 봉새가 홀연히 날아오르는 듯이 하였네.
組練照楚國, ¹⁰⁾	용감한 군인의 갑옷과 군복이 초 땅에서 빛나고
旌旗連海門.	군대의 깃발은 바다에까지 이르렀네.
西秦百萬衆, ¹¹⁾	西秦의 백만 대군
戈甲如雲屯, ¹²⁾	그 무기와 갑옷을 구름처럼 쌓아두었네.
投鞭可填江, ¹³⁾	채찍을 던지면 장강도 메울 수 있었지만
一掃不足論.	일거에 소탕되니 거론할 것조차 없구나.
皇運有反正, ¹⁴⁾	국운이 회복되어
醜虜無遺魂, ¹⁵⁾	오랑캐 중에 살아남은 이 없었네.
談笑遏橫流, ¹⁶⁾	담소를 즐기며 부견의 날뿔을 막아내니

9) 雲鵬: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대붕. 이 시에서는 謝安을 가리킨다.

10) 組練: 戰服. 군대의 무장 軍容을 비유한다.

11) 西秦: 前秦라고 한다.

12) 戈甲: 창과 갑옷. "전쟁"이나 "군대"를 비유하는 말. ○ 雲屯: 구름처럼 많음. 여기서는 兵馬가 구름처럼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投鞭: 『晉書·苻堅載記』에 "부견이 말하길비록 장강이 있다하나 어찌 견고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이 백만대군이 강에 채찍을 던지면 장강의 흐름조차 끊을 수 있으리로다(堅曰:雖有長江, 其能固乎? 以吾之衆旅, 投鞭於江, 足斷其流)"라는 내용이 있다.

14) 皇運: 國運. ○ 反正: 주간은 "난리를 평정하여 평상으로 돌아감(撥亂而返之正也)"이라 주를 달았다.

15) 醜虜: 적을 업신여겨 부르는 말.

16) 談笑: 『晉書·謝安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견이 후에 백만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회와 비 땅에 주둔하자 수도사람들이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사안에게 정도대도둑을 말기자 사현이 들어와서 계책을 물었는데 사안은 평온한 듯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사안은 "이미 따로 생각해둔 것이 있다"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잠잠해지자 사현은 감히 다시 물어보지 못하고 장헌더러 다시 물어보게 하였다. 사안은 마침내 수레를 메어 별장으로 가게 하자 친구들이 다 모여들었고, 사현과 별장을 걸고 바둑을 두었다. 사안은 바둑실력이 항상 사현만 못했지만 이날 사현은 두려움이 들어서 만만한 적수가 되더니 끝내 이기지 못하였다. 사안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생질인 양담에게 "이 별장을 너에게 주마"라 하고는 마침내 유람을 떠났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더니 장수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일일이 지적하며 가르쳐 주었다. 사현 등이 부견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 때 사안은 손님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편지를 다 보고는 상위에 던져 놓고 끝내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바둑만 두었다. 손님이 편지의 내용을 물으니 "아이들이 이미 적을 물리쳤다하네"라고 천천히 대답하였다. 바둑을 다 두고 내실로 돌아올 때 문지방을 지나다가 마음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막신의 굵이 부러지는 것도 알지 못했다. 사안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침착한 것이 이와 같았다(堅後率衆號百萬次於淮、淝, 京師震恐. 加安征

蒼生望斯存.17)	창생의 소망이 이에 존속하게 되었다.
冶城訪古跡,	야성에서 옛 유적지 찾으니
猶有謝安墩.	아직도 사안의 돈대가 남아 있네.
憑覽周地險,18)	높이 올라 바라보니 사방이 두루 험하고
高標絕人喧.19)	우뚝 솟은 돈대엔 속세의 시끄러움이 없네.
想像東山姿,20)	사안의 모습 머릿속에 그려 보고
緬懷右軍言.21)	왕희지의 말을 회상한다.
梧桐識佳樹,	오동은 좋은 나무임을 알겠고
蕙草留芳根.	혜초는 향기로운 뿌리로 남았네.
白鷺映春洲,22)	백로는 봄날 모래톱에서 빛나고
靑龍見朝暎.23)	청룡 바위는 아침 햇살을 바라본다.

討大都督。玄入問計，安夷然無懼色。答曰：“已別有旨。”既而寂然。玄不敢復言，乃令張玄重請。安遂命駕出山墅，親朋畢集，方與玄圍棋賭別墅，安常棋劣於玄，是日玄懼，便爲敵手，而又不勝。安顧謂其甥羊曇曰：“以墅乞汝。”安遂遊涉，至夜乃還，指授將帥，各當其任。玄等既破堅，有驛書至，安方對客圍棋，看書既竟，便攝放牀上，了無喜色，棋如故。客問之，徐答曰：“小兒輩遂已破賊。”既罷還內，過戶限，心喜甚，不覺屐齒之折，其矯情鎮物如此。○橫流：부견의 남침을 가리킨다.

- 17) 蒼生: 백성. 『世說新語·排調』에 의하면, 사안이 일찍이 회계의 東山에 은거할 때 조정에서 누차 출사를 명하여도 나오지 않자, 御史中丞인 高崧이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가) 동산에 높이 누워있지만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말하고 있더이다. ‘사안이 나오지 않으니 장차 백성들은 어이하나?’라고요(高臥東山, 諸人每相與言: ‘安石不肯出, 將如蒼生何’). 사안은 나중에 재상이 되었다.
- 18) 憑覽: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다.
- 19) 高標: 구간은 “돈대가 평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라 하였다.
- 20) 東山: 사안이 은거하던 곳으로 浙江 上虞縣 서남쪽에 있다. 楊齊賢은 “동산은 會稽에 있다(東山在會稽)”라고 주를 달았다. 여기서는 사안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 21) 緬懷: 떠올리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 右軍: 왕희지. ○ 言: 구간은 “言은 議論이다. 왕희지와 함께 돈대에서 노닐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 후자는 북벌을 간하던 글이라 하였는데, 옳은지 그른지는 자세하지 않다(言者, 議論也. 同遊於謝墩, 故懷其言耳. 或曰諫北伐之書也, 未詳是否)”라는 주를 달았다.
- 22) 白鷺: 白鷺洲. 남경시 서남쪽 장강 가운데에 있다. 『太平寰宇記』 권90 江南東道 昇州 江寧縣에서는 “백로주는大江 가운데 있는데 백로가 많이 모여들어서 백로주라는 이름이 붙었다(白鷺洲在大江中, 多聚白鷺, 因名之)”라고 했다. 楊齊賢은 금릉성 아래 秦淮 밖에 있다고 했다.
- 23) 靑龍: 『江南通志』 권11 山川江寧府에 “靑龍山은 강녕부 동남쪽 35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산기슭에 돌이 단단하고 푸른색을 띠고 있어서 인근 사람들이 이 돌을 가지고 비석의 밑돌

地古雲物在, ²⁴⁾	땅은 오래되었어도 풍광은 그대로인데
臺傾禾黍繁. ²⁵⁾	돈대는 기울고 벼와 기장만이 무성하구나.
我來酌清波, ²⁶⁾	내 여기 와 청파에 임하여 술 한 잔 따르고
於此樹名園.	이곳에 훌륭한 동산을 만들고자 하네.
功成拂衣去,	공을 이루면 훌훌 털고 떠나
歸入武陵源. ²⁷⁾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련다.

<校記>

제목에서의 '冶城西北'이 '冶城北'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목 아래 注에서 '金陵'이 빠진 판본도 있다.
 제목 아래 注 첫머리에 '自注' 또는 '太白自注'라고 시작하는 판본도 있다.
 제목 아래 注의 '詩' 다음에 '也'자가 들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구의 '遂'이 '逐'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9구의 '冶城訪古跡'이 "至今冶城隅"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5구의 '樹'가 '樹'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32구의 '名'이 '石'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마지막구의 '歸入'가 '長嘯'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옛날에 진나라가 북쪽 지역의 지배권을 잃고 남과 북으로 쪼개지면서 독이 터지

로 사용한다(靑龍山在府東南三十五里, 山趾右堅而色靑, 郡人多取爲碑礎)라고 했다. ○ 朝
 暾: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의 햇살. 아침 햇살.

24) 雲物: 풍광. 경치.

25) 禾黍: 흉망성쇠. 『詩·王風·黍離序』에 “『서리』는 鎬京의 몰락(西周)을 가슴 아파한 시이다. (동천한 이후) 주나라 한 대부가 行役으로 호경에 이르러 옛 종묘와 궁실을 지나는데, 그 모든 곳이 벼와 기장으로 무성했다. 호경의 몰락을 가슴 아파하고 배회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이 시를 지었다(『黍離』閔宗周也. 周大夫行役至於宗周, 過故宗廟宮室, 盡爲禾黍. 閔宗周之顛覆, 彷徨不忍去而作是詩也)”라고 했다.

26) 清波: 일부에서는 “술”로 보기도 하지만 본 역해에서는 郁賢皓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번역했다.

27) 武陵源: 陶淵明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이상향.

듯 무너졌고, 회제 때인 영가 5년에 劉曜와 王彌의 군대가 낙양에 들어오자 모두들 남으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쟁은 어찌 그리도 끝이 없던지 용호상박하듯 군웅들이 아침 아침저녁으로 다투었다.

이 당시에 오랑캐의 말들은 한나라 풀밭 위에서 암수 서로 희롱하듯 뛰놀았고 스스로를 하늘의 자식이라 부르는 흉노족의 군대가 중원 땅을 쳐들어왔다.

그러자 재능이 출중하고 명철한 謝安이 국운이 쇠퇴함을 감지하고 이를 저어하여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대붕처럼 홀연히 날개 짓하며 뜻을 펼쳤다.

정예 부대 군인들의 무장 軍容이 남국을 비추이고 군대의 깃발은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苻堅이 이끄는 前秦의 백만 대군은 무기와 갑옷이 마치 구름을 쌓아둔 것처럼 많았고,

채찍을 던지면 장강도 메울 수 있다 호언장담했지만 진나라 군대가 한 번에 쓸어버리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난리를 평정하여 국운이 바로 서서 평상으로 돌아가니 원수 같은 오랑캐 놈들 중에는 살아남은 이 없었다.

이렇듯 사안은 비둑을 두고 답소를 즐기면서 부견의 날뿔을 막아내니 백성들의 소망이 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야성에서 옛 유적지를 찾았더니 그곳에는 아직도 사안의 돈대가 남아 있고, 높은 산에 올라 저 멀리 험한 지세 살펴보자니 우뚝 솟은 돈대엔 인간 세상의 시끄러움이 끊어졌다.

그 옛날 동산에 은거하던 사안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고는 왕희지의 말을 회상해본다.

이런 홀륭한 사안의 돈대에 나무는 좋은 오동나무가 있고 혜초는 향내 나는 뿌리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겠도다.

백로주에 노니는 백로는 봄날 모래톱에서 반짝이고 청룡산 기슭을 띠도는 푸른색 바위는 청룡의 형상으로 아침 햇살을 바라본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땅 주변의 풍광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사안이 세웠던 돈대는 기울고 폐허로 변해 벼와 기장만이 무성하다.

나 이백은 이곳에 와서 저 멀리 흘러가는 청파에 임하여 사안과 그 동료들을 추모하며 술 한 잔 따르고는 이곳에 이름난 동산을 만들고자한다.

그러나 나 또한 공을 이루고 나면 옷에 묻은 먼지를 미련 없이 툭툭 털고 떠나서 도연명이 이야기했던 그 무릉도원으로 돌아가련다.

<解説>

이 시에서 이백은 자신을 사안과 동일시하여, 사안이 동산에 은거하다가 공을 이루었듯이 자신도 은거하면서 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郁賢皓는 이 시가 천보6년(747) 금릉에서 지어졌다고 하였다.

첫 구에서 6구까지는 永嘉 시절의 난리 상황을 다루고 있고 7구에서 18구까지는 사안이라는 뛰어난 재상이 국난을 극복한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서진 부견의 기세등등한 군대를 일소하듯 쓸어버리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대한 업적을 전혀 힘 안들이고 웃고 떠들고 바둑을 두면서 이루어내었다. 이렇듯 사안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19구에서 24구까지 시인은 사안의 돈대에 올라 사안과 왕희지가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해본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돈대에서 본 풍광과 자신의 느낌을 적었다. 奚祿詒(해록이)는 이 시에 대해 “과거 진나라의 일을 가지고 時事를 논하지만 도리어 자부하고 있다(借晉以言時事, 卻自負)”, “진나라 때의 부견을 말하였지만 의미하는 것은 안록산의 난을 가리킨다(從晉室符堅發論, 意者指祿山之亂乎)”고 해석하였다. 『繫年』에서는 “시에서 ‘蕙草留芳根, 白鷺映春洲’라고 한 것은 아마도 至德 원년 봄에 지은 것 같다(詩云: ‘蕙草留芳根, 白鷺映春洲’疑是至德元載春季作)”고 하였다. 그러나 이 해 봄이 될 때까지도 이백은 金陵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 해에는 안록산이 중원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謝安墩에서 동산을 만들 수는 없었다. 이를 유추해보면 해록이의 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校注』에서는 “시의 언어와 뜻이 권22의 「金陵三首」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詩之語意與卷二二之「金陵三首」略

同)”고 했다.

3. 결론

이백의 「登覽」은 시인이 여러 지역과 명산을 친히 유람하고 사찰의 탑, 도관의 누관, 돈대 등을 직접 올라서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등람시는 눈앞에 펼쳐진 정경을 묘사하면서 역사 흥망에 대한 감개를 표현하여 자신의 역사의식 및 현실의식을 기탁하기도 하고 자신의 응지를 펼칠 수 없는 애상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초탈적 염원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역사 인물 속에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登覽」에는 다음 몇 가지 창작 의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시인이 전쟁터, 누대, 탑, 돈대 등을 올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묘사하며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현실 경물을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身之所歷, 目之所見)”하여 이루진 창작이다.

둘째, ‘卽景生情’, ‘現量’의 창작이다. 시인은 현실 경물을 직접 오르고 바라보면서(登覽) 솟아난 창작 감흥을 포착하여 형상화하였다. 이로써 등람시는 ‘直覺思惟’에 의한 창작이다.

셋째, ‘情景交融’의 예술 경계를 구성하고 있다. 시인은 경물 묘사 속에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고 감정의 묘사 속에 예술 형상을 그려내었다.

넷째, 역사에 대한 회고의 감정이 많으며 특히 『史記』 등으로부터 다량의 역사 인물 및 전고를 인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채색하고 자신을 투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登覽」은 이백 삶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나온 감정과 예술소양이 결합하여 나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登覽」 4수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의 창작의 진위 및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제기된 의견들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이 문제는 향후 국내외에서 깊은 고증과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參考文獻〉

- 王琦 輯注,『李太白詩集注』,北京,中華書局,1977.
- 瞿蛻園·朱金城,『李白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 宋敏求·曾鞏 等編,『李太白文集』,成都,巴蜀書社,1985.
- 安旗 主編,『李白全集編年注釋』,成都,巴蜀書社,1990.
- 彭定求 等編,『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2.
- 郁賢皓,『李白大辭典』,桂林,廣西教育出版社,1995.
- 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 陳伯海主編,『唐詩彙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 陳貽焮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 蕭士贊,『分類補注李太白詩』,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3.
- 丁放,袁行霈,『盛唐詩壇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2.

〈中文提要〉

本文主要探討「登覽」36首中的4首,即從第12首到第15首。具體研究內容是原詩「翻譯」、「校記」、「詳釋」、「解說」四部分。「登覽」36首描寫了詩人登高山、樓台等所見景物及感懷,由此,其詩題里邊「登」字或「望」字用的特別多。本文所論述的4首也都是描寫登高攬勝的

情景。「登覽」第12首「登廣武古戰場懷古」是秋天登廣武古戰場時作的,第13首「登新平樓」是暮秋登樓遠望長安時作的。第14首「秋日登揚州西靈塔」是暮秋攀登西靈塔時作的,第15首「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是春天登謝安墩時做的。從描摹登覽所見之景色中,作家表達出對歷史盛衰的感慨、体现出濃厚的歷史意識和現實意識,也顯露出自己不得志的深愁、自我超脫的願望。所以,我們從中可以看到「登覽」詩歌的思想性和藝術性都很高。「登覽」的創作意義可分為如下四個方面:

首先,描寫詩人登古戰場、樓台、古塔、墩台所見景物及感想,這就是詩人由“身之所歷,目之所見”而作的。

其二,是「即景生情」、「現量」之作,詩人捕捉登覽所勃發的詩興,以塑造景物形象。因此,「登覽」正是以“直覺思維活動”為創作基礎的。

其三,呈現出一種情景交融的藝術境界。詩人把自己的感情寄托在景物描寫之中,也把藝

术形象寄寓在自己感情抒发之中。

其四，充满了回顾历史之情，李白大量运用『史记』中的历史人物、典故，从中投影着自己的感情。

本文根据以往的研究只略述『登覽』的作品真伪、创作年代等，是因为这些问题还需要深钻细研。我们希望国内外学者们进行全面而严谨的考证研究。

關鍵詞: 李白, 李白詩, 登覽, 三十六首, 譯解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11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